

1920년대 반진화론운동과 스코프스 재판

박희주 (명지대 과학사 교수)

논문초록

1980년대 초 미국의 창조론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창조-진화 논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그 역사적 뿌리와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20세기의 대표적 진화론 논쟁인 미국의 스코프스 재판을 소개한다. 먼저 이 논쟁의 배경으로 미국사회에 진화론이 도입되고 반진화론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특히 1920년대 들어 갑자기 보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반 진화론적 정서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스코프스 재판을 통해 반진화론운동의 선봉장인 정치가 브라이언과 진보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다로우가 격돌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스코프스 재판이 진화론교육과 반진화론운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결론은 스코프스 재판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진화론 교육에 모두 타격을 입혔고 진화론 논쟁은 향후 30년간 소강상태에 빠져들며 이로써 20세기 진화론 논쟁의 한 막이 내리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주제어: 스코프스 재판, 진화론, 창조론, 반진화론운동, 브라이언

2007년 5월24일 접수; 2007년 8월16일 수정; 2007년 8월18일 게재 확정

- I. 서론
- II. 스코프스 재판 이전의 진화론
- III. 반진화론운동
- IV. 스코프스 재판
- V. 결론

I. 서론

1920년대 미국의 스코프스 재판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진화론 논쟁으로 지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그 배경과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스코프스 재판의 배경으로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미국 사회에 보급된 진화론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근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진화론이 1920년대 들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며 격렬한 반진화론운동을 촉발시킨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반진화론 운동의 결과 1920년대 중반 테네시 주에서 반진화론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테네시 주의 반 진화론법은 당시 막 결성된 진보적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에 더해 테네시의 소도시인 데이턴을 알릴 기회를 찾던 마을 유지들, 그리고 데이턴 공립학교의 교사 스코프스가 어울려 세기의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반진화론 운동을 이끌었던 정치인 브라이언과 진화론 진영을 대변한 당시의 대표적인 율사인 다로우 간의 대결이었다. 이들이 가진 세계관의 충돌을 통해 20세기 초 사상적 조류의 한 단면을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결론을 겸해 스코프스 재판이 진화론과 반진화론 운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스코프스 재판에 대한 서술은 재판 직후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생산되어왔으며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스코프스 논쟁에 대한 해석사는 그 자체가 복잡

해 이 논문에서는 상술할 수 없다(박희주, 1999: 112-120, 특히 114-116 참조). 이 글에서는 해석적 관심보다는 반진화론 운동과 스코프스 논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

II. 스코프스 재판 이전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도입되기 전 생물세계의 기원에 관한 미국과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개념은 특별창조설이었다. 성서에 기초를 둔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모든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859년 런던과 뉴욕에서 동시 출간된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이러한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인 자연선택이론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물의 진화와 공통 조상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후 소수의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로부터 오랜 세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세계가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왔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생물종에는 물론 인간도 포함되었다.

『종의 기원』이 출간된 후 20년 진화론은 미국과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으며 반진화론을 표방하는 생물학자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1880년 일었던 한 논쟁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의 편집인은 진화론과 기독교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장로교 계통의 『옵저버(Observer)』지에 현재 활동하는 미국의 과학자 중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물학자 세 사람을 꼽아보라고 도전했다. 『옵저버』는 결국 두 사람 밖에 거명할 수 없었으며 그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캐나다인(존 도선, John Dossen)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프린스턴대학의 은퇴를 앞둔 노교수(아놀드 가이윗, Arnold Guyot)였다(Pfeifer, 1972: 203-204).

진화론이 과학자들 가운데 지배적 관점이 되면서 진화론은 중등교육에도 급속히 퍼져나갔다. 『종의 기원』출간 이후 생물학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가 집필되기 시작했다. 이들 교과서는 생명세계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교과서에 도입했다. 베시(Chales E. Vessey)가 쓴 교과서가 대표적 경우였다. 베시는 미국 최초의 진화론자이며 당시 최고 권위의 생물학자였던 하버드대의 그레이(Asa Gray) 밑에서 수학했다. 그가 집필한 1880년 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한 식물학』 그리고 1884년의 『식물학』 두 권의 교과서는 "전적으로" 진화론적이었다(Larson, 1989: 15). 베시의 교과서와 같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많은 교과서들은 진화론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화론은 창조론을 거의 대체하게 되었다.¹⁾

이상스러운 일은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1920년 경 격렬한 반진화론 운동이 불붙기 전까지 미국 공립학교는 수십 년 동안 이들 교과서로 진화론을 가르쳐왔다. 왜 근본주의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저항을 이토록 미루었을까? 역사학자 리슨(Edward J. Larson)은 먼저 중등교육의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1900년을 전후해 공립중등교육이 급속히 확대되기 전까지 미국의 중등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1880년 이전 연방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를 기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1890년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연령층의 4%에도 미치지 않는 20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 문제로서의 진화론은 사회적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고등학생 숫자는 매 십년마다 배로 증가해서 1920년에 이르면 180만 명을 상회

1) 185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출판된 생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Edward Larson (1987). "Before the crusade: evolution i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before 1920."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20 (1), 89-114

하게 된다(Larson, 1989: 26-27). 이렇게 중등교육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진화론도 미국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1920년 전국적인 반진화론 운동이 불붙게 된 데는 이러한 중등교육의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근본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진화론을 신앙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이들은 소위 "고등비판"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신학과 격전을 벌이는 중이었고 따라서 진화론은 즉각적인 관심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²⁾ 세계 근본주의 기독교 연맹(World's Christian Fundamentals Association)의 창립자이며 반진화론 운동의 대표적 리더였던 라일리(William B. Riley)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근본주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적은 소위 '고등비판'이었다. 그런데 논쟁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불신앙의 근저에는 진화론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Szasz, 1982: 107).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등비판보다는 진화론이 근본주의자들에게 보다 손쉬운 타깃이었을 것이다. 역사학자 윌리엄 일리스가 지적하듯 이들에게는 독일의 복잡한 역사적 논증으로 무장한 고등비판보다는 대중화된 "원숭이 이론"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고 대처하기도 손쉬웠을 것이다(Ellis, 1981: 16).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진화론의 폐해를 확신하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근본주의와 모더니즘과의 격전지가 진화론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던 이 전대미문의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

2) 고등비판에 따르면 성경은 여느 고전문헌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문헌비평을 통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읽혀질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등비판을 둘러싼 논쟁은 모세오경에 대한 저자문제와 예수그리스도 처녀탄생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20세기 초 미국 내 고등비판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논쟁에 대해서는 Ferenc Morton Szasz (1982) 2장과 3장을 참조하라.

해 고심하던 미국 지식인층은 독일의 전쟁 이데올로기와 다윈주의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소위 "독일식" 다윈주의는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잔혹한 생존투쟁을 강조했는데 이를 국제관계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1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다고 이들은 보았던 것이다. 생물학자 켈로그(V. Kellogg)의 『사령부의 밤』(1917)은 이러한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켈로그는 전후 구제위원회의 미국 측 위원으로 파견되어 독일장교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다. 『사령부의 밤』은 이들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집필한 책이었다. 독일의 잔혹스러운 전쟁이데올로기와 그 이면의 진화론적 철학을 폭로하기 위해 집필한 이 책은 독일의 전쟁이데올로기는 다름 아닌 "가장 악질적 형태의 신 다윈주의를 수용해 무소불위의 자연선택을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에 직접 적용한 것"이란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Kellogg, 1917: 22). 한마디로 "목숨을 건 잔인한 생존투쟁"에 기초를 둔 자연선택원리가 독일 지식인에게 "복음"이었다고 켈로그는 통렬하게 비판했다(Kellogg, 1917: 28). 켈로그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독일 전쟁이데올로기와 다윈주의와의 관련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중에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세 번이나 미국 대통령후보를 지냈던 사람으로 1920년대 반진화론운동을 이끈 핵심인물이었다.

이따금씩 진화론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브라이언이 진화론의 사악함을 확신하게 된 것은 켈로그의 책을 읽고서였다.³⁾ 이후 진화론에 대한

3) 진화론에 대한 브라이언의 거부감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은 1904년에 행한 그의 연설 "평화의 왕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에 특히 거부감을 가졌으며 진화된 원숭이가 인간이라는 생각에 맹렬히 반대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우월하며 정신보다 우월한 것이 영혼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 셋 중의 하나 특히 가장 떨어졌던 1/3에서만 찾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진화에 대한 다윈의 설명에 특히 격분했는데 진화가 중요의 법칙 즉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법칙에 의해 작동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은 중요가 아닌 사랑에 의해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싶어했다. 브라이언은 이같이 다윈의 진화론을 반

브라이언의 반감은 점차 커져갔으며 1921년의 한 연설에서 그는 본격적인 공세를 펴내기 시작했다. "진화론의 위협"이란 제목의 이 연설에서 브라이언은 진화론이 왜 기독교신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무엇보다 아득한 과거로부터의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Levine, 1965: 265). 나아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큰 이유인 영생에 대한 신앙을 진화론이 파괴한다고 브라이언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윈의 이론은 비과학적이며 다윈 자신도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윈이론의 핵심인 자연선택은 사육자의 인위선택으로부터 유추한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자연선택이론을 받아들이는 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실 이 뛰어난 과학자의 이론은 추측에 불과하며...다윈주의는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일련의 추측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4절에는...다윈이 쓴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은 과학이 들어있다(Levine, 1965: 265).

그동안 했던 연설 중 가장 공격적이었던 이 연설은 팸플릿으로 만들어져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으며 많은 보수기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읽었다. 이 연설로 브라이언은 근본주의 그룹에서 즉각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근본주의 진영의 선봉에 서게 된다.

이즈음 브라이언이 행한 또 다른 연설 역시 큰 논쟁을 낳았다. 브라이언의 연설을 들은 『뉴욕타임스』 편집인은 그에게 다윈주의에 대한 반박문을 부탁했다. "하나님과 진화"라는 제목으로 1922년 2월 26일 『뉴욕타임스』 일요일

대하기는 했지만 이때만 해도 이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호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Levine, 1965: 261).

판에 게재된 브라이언의 글은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에는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브라이언의 논리가 잘 드러나 있다.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교사가 종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성경이 배제되었다. 이 원칙에 충실히 따른다면 종교를 반대하는 교사가 공립학교에서 반종교적 교육을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거꾸로 왜 충실한 납세자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추측에 불과한 이론[다윈주의]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Bryan, 1922: 1)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인간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가르칠 수 없다면 진화론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브라이언의 기본 입장이었다.

바로 다음 주 두 저명한 과학자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소장인 오스본(Henry F. Osborn)과 프린스턴대의 동물학 교수인 콘클린(G. E. Conklin)이었다. 오스본은 "진화와 종교"란 글에서 "1922년 현재 진화론은 자연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립된 진리이다"고 천명했다(Osborn, 1922: 8). 이어 콘클린은 1859년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쏟아진 "태산 같은 증거" 덕분에 "오늘날 진화론의 진실을 확신하지 않는 생물학자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브라이언 씨는 기존의 교육기관을 움직여 과학과 종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기보다는 ... 자신의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라고 콘클린은 글을 맺었다(Conklin, 1922: 14).

저명한 신학자도 반-브라이언 대열에 합류했다. 유니온신학교 교수이며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포스딕(Herry Emerson Fosdick)은 일주일 뒤 같은 신문에 다음과 같이 날이 선 기사를 올렸다. 포스딕은 진화는

오늘날 너무나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어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도 이 보다는 확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의 두 과학자에게 무조건적 신뢰를 보냈다. 이어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라고 명령했지 지구가 멈추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어 포스딕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거부했던 마틴 루터와 브라이언을 비교한 후 브라이언은 이 같은 무지를 현대생물학에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라이언이 생각하듯 성경은 "권위 있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며 결코 그런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경은 "영적 삶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과거 신학의 하나님인 이때금씩 등장하는 경이로운 사건의 연출자"로서의 창조주 개념을 부정하고 "진화의 하나님이며 우주에 내재하는 하나님" 개념을 주장했다. 혹시라도 브라이언이 "자신의 희한한 중세적 사고"를 공립학교에 강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과학의 자유를 위해 과학자들이 쫓기하듯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Fosdick, 1922: 2).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에서 일어난 이 논쟁은 근본주의 논쟁이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옮겨감을 의미했다.

브라이언이 진화론 논쟁에 뛰어든 것은 여러 면에서 근본주의 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우선 브라이언은 진화론논쟁을 미국사회 전체가 연루된 종교, 교육 논쟁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향후 근본주의운동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zasz, 1982: 112). 또한 브라이언이 진화론 논쟁에 뛰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적 인지도를 가진 브라이언 같은 인물이 진화론을 반대함으로써 반진화론자들의 신념은 더욱 공고해졌던 것이다. 나아가 브라이언은 이들에게 부족했던 "국민적 평판과 명예, 그리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거느린 대변인" 자리를 채워주었다. 반진화론운동에서 브라이언이 차지했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역사학자 자즈(Ferenc M. Szasz)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만일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진화론 문제가 이처럼 미국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다음 세대에까지 연결되는 진화론논쟁의 기본 틀을 대중사회에 확립시킨 것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Szasz, 1982: 108).

한마디로 브라이언은 1920년대 반진화론운동을 이끈 견인차였다.

III. 반진화론운동

근본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인식하게 되자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의 진화론교육으로 집중되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진화론 교육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로부터 반진화론운동은 시작되었다. 1920년 진화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브라이언은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격려편지를 받았다. 어떤 이는 당장 반진화론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어떤 목사는 한술 더 떠 브라이언에게 이 캠페인은 당신이 남은 생애에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Szasz, 1982: 110).

브라이언은 자신의 정치적 생애를 통해 서민을 항상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위대한 서민의 의원"으로 불렸다. 브라이언은 이러한 서민우위 원칙을 과학에도 적용시켜 당시 몇 천 명에 불과했던 소수 엘리트 과학자 집단의 독선적 결정에 따라 진화론교육이 좌지우지된다고 비판했다. 브라이언은 "과학자들은 마치 전체주의같이 우리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강제하려고 시도한다. ... 가장 숫자가 적으면서도 가장 뻔뻔하게 가장 압제적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독재적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며 분개했다(Levine, 1965: 289). 이들 과학자에게는 "학부모와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서 봉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하며 그 누구보다 "봉급을 지불하는 사람이 학교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Levine, 1965:

278).

아이러니하게 브라이언의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영혼구원이 주된 관심사였던 근본주의자들의 정치관과는 크게 어긋났다.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주된 임무가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종교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신념을 수용하기 힘들었다. 거꾸로 브라이언은 사회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이러한 무관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기독교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무오한 신앙임과 동시에 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개혁하는 사회운동이기도 했다. 따라서 브라이언에게 이 둘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하나로 묶었던 이러한 묘한 결합은 비판가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종교적으로는 극단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근본주의와 함께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한 기자가 질문하자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불완전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종교적으로 진보적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성경,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만족한다(Levine, 1965: 274).

근본주의 지도자들과의 정치적 신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이 반진화론 운동에 가담하자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이들은 최소한 두 가지를 공유했던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 축출이었다.

라일리(William B. Riley)가 말했듯 브라이언이 "진화론과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라일리 자신은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지도자였다. 라일리는 미네아폴리스의 유명한 제일침례교회(the First

Baptist Church) 목사를 지냈으며 1918년 세계기독교근본주의연맹(WCFA)을 창립했던 인물이다(Larson, 1989: 30). 브라이언을 영입하기 원했던 라일리는 그를 WCFA의 총재로 추대했으나 브라이언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변호사출신이기도 했던 브라이언은 스코프스 사건이 터지자 재판에서 WCFA의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1921년 봄 라일리는 켄터키 주에서 22회에 이르는 반진화론집회를 조직했으며 그해 말에는 켄터키 침례교이사회에서 반진화론 성명서를 채택했다. 브라이언도 "이 운동은 전국을 강타해 다윈주의를 학교에서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며 라일리를 열렬히 지지했다(Szasz, 1982: 111). 1922년 1월 켄터키 주 의회에서 연설한 브라이언은 반진화론법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는 주 기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기관에서도 다윈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청원했다. 이 청원에 따라 하원의원 조지 일리스는 미국 최초의 반진화론법을 도입하게 된다. 브라이언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주 전체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슬아슬하게 1표 차이로 켄터키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켄터키의 반진화론법 제정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20개 주에서 45개의 유사법안이 도입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Larson, 1989: 48).

1923년 2월 오클라호마 주는 진화론이 포함된 교과서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반진화론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진화론법 지지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 법안을 교과서 법안과 함께 묶어서 통과를 쉽게 만들었던 것이다. 새 교과서 법안은 초등학교교과서를 무료 배부함으로써 공립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 법안에 추가조항을 삽입해 이들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반진화론 캠페인과 이러한 교묘한 전략 덕분에 이 법안은 근소한 차이지만 하원을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최종 승인을 위해 이 법안이 진보적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월턴(John Walton)의 책상에 놓였을 때 예

상했던 대로 반진화론 조항 부분은 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료교과서 배부를 열렬히 지지했던 그는 득실을 저울질하며 고심한 끝에 결국 승인을 하게 된다(Larson, 1989: 49-52).

오클라호마 주의 반 진화론법 통과가 발표되자 이에 고무된 브라이언은 자신의 소속주인 플로리다에서도 반진화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 의회에 요청했다. 1923년 5월 플로리다 주 의회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을 가르치거나 가르치도록 허락하는 것, 혹은 인간과 하등생물 간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다윈주의나 유사한 가설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의 상원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Larson, 1989: 53). 이 성명서의 내용은 브라이언이 작성한 초안을 따라 반진화론에 대한 그의 두 정책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첫째, 반진화론법을 위반할 시 큰 벌금이나 심지어 구금까지 요구했던 다른 근본주의 자들과는 달리 브라이언은 반 진화론법은 어떠한 형벌조항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 정책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 둘째, 플로리다의 법은 진화를 사실로 가르치는 독선적인 진화론 교육을 금지할 뿐이며 "진화를 하나의 가설로 제시하는 책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진화를 사실로 가르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Levine, 1965: 285-86). 이러한 완화조항은 미국의 두 번째 반 진화론적 법적조치의 통과를 수월하게 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조치는 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정책으로서의 효과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플로리다의 반진화론 결의안은 1923년 5월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용히 시행되었다.

1921년 봄 라일리가 켄터키 주에서 시작한 반진화론법 캠페인은 테네시 주의 스코프스 재판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테네시의 첫 번째 반진화론 법안은 1923년 봄 상정되었으나 상, 하 양원의 위원회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그러

나 반 진화론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라일리로 이 해 말 테네시주의 반진화론 캠페인에 가담한다. 1924년 초 네시빌의 반 진화론자들은 브라이언을 초빙해 연설을 듣게 되는데 이 연설은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곧 팜플렛으로 제작되어 테네시주 전역에 유포되었다. 반진화론법에 대한 요구의 수위는 점차 높아갔으며 1925년 의회가 시작한 며칠 후 반진화론 법안이 다시 상정되었다. 상원의원 존 월턴이 상원에 상정한 반진화론 법안은 상원의 사법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하원의원 존 워싱턴 바틀러(John Washington Butler)는 또 다른 반진화론 법안을 만들어 하원에 상정했다. 시골벽지의 농부출신이며 보수 침례교 신도였던 바틀러는 반진화론을 이슈로 삼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이행해 "성경이 가르치는 신에 의한 인간의 창조기사를 부인하고 대신 인간이 하등동물로부터 유래했다는 어떠한 이론"도 주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위 '바틀러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 후 이를 만에 하원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나흘 후 최종투표에서 하원은 71대 5의 압도적 지지로 이를 통과시켰다. 주지사 오스틴 피(Austin Peay)는 이 법안을 "불합리하다"고 규정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나 1925년 3월 다음과 같이 희망하며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심히 검토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와 이 법안이 충돌할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교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법은 절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아무도 이 법이 실효를 발휘하리라고 믿지는 않는다(Ginger, 1958: 7).

그러나 주지사의 기대와는 달리 사건은 엉뚱하게 흘러갔다.

IV. 스코프스 재판

테네시 주의 반진화론법이 통과되자마자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은 "이 법의 실효성을 법정에서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원할 테네시 주의 교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역신문에 뿌렸다. ACLU는 1920년 "미합중국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창립된 진보적 시민단체로서 지도부는 ACLU의 취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재료를 찾던 중이었다. 테네시 주의 반 진화론법은 이러한 취지에 꼭 들어맞던 호재였던 것이다.

인구 2천에 불과한 시골 마을인 데이턴의 유지들도 이 광고를 보았다. 데이턴의 유지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턴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까 고민하던 차에 지역신문의 광고에서 기가 막힌 기회를 보았던 것이다. 이들은 곧 스코프스(John Tomas Scopes)라는 젊은 교사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스코프스는 데이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 체육 등을 가르치는 보조교사였다. 스코프스는 학교 교장이 병가로 한 달간 쉬게 되자 그가 맡고 있던 생물학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 조지 헌트의 『시민의 생물학』을 교재로 사용했었다. 이 책은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였으며 특히 진화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스코프스는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생물학시간에 진화론도 가르치지 않았을까 말했던 것이다. 실제 상황이 어떠했던 스코프스는 시험대에 서기로 자원했고 1925년 5월 구금되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사건 일주일 후 전직 변호사 출신이기도 했던 브라이언은 앞서 언급한 세계기독교근본주의연맹(WCFA)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돕기로 했다. 이에 맞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중 한 사람이었던 다로우(Charence Darrow)는 즉각적으로 원고 측 변호인을 지원했다. 다로우는 급진적 정치범과 노동법 변호로 지난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었다. 다로우와 브라이언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진보적 정치이념에서 입장을 같이했으며 한때 다로우가 브라이언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던 사이였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종교적 문제에서는 참여하게 입장이 갈렸다. 불가지론자로서 다로우는 학문의 자유와 진화론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위해, 종교인으로서 브라이언은 진화론의 악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브라이언과 다로우가 가담하자 재판의 성격은 급변했다. 학교 교과과정의 통제권을 누가 질 것인가, 시민은 어느 정도선까지 교육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의 교육 자율권 대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주정부의 권위 등 중요한 교육적 이슈는 거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대신 신앙을 대표하는 브라이언과 회의주의를 대표하는 다로우가 격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두 거대한 세력 간의 상징적 격돌은 피고 측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헤이즈(Arthur Garfield Hayes, 1881)는 이 재판을 "두 정신 즉 완고하고, 정통적이며, 권위 순응적이고,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전통적인 정신과 진보적이고, 비판적이며,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관용적인 정신간의 격돌"로 보았다(Levine, 1965: 333).

1925년 6월 10일 금요일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ACLU 변호인 측의 목표는 분명했다. 다름 아닌 "이런 법을 만든 무지와 불관용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구체적 타겟은 브라이언이었다(Larson, 1989: 72). 다로우는 훗날 "나의 목표, 나의 유일한 목표는 브라이언과 그의 근본주의자들에게 미국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Levine, 1969: 332). 처음부터 진보성향의 일간신문들은 스코프스 측에 공감을 표했으며 반진화론진영을 조롱함으로써 피고 측을 도왔다. 이러한 경향을 보인 많은 진보언론들 중에서도 『볼티모어 이브닝 선』지의 멘켄(H. L. Menken)은 두드러졌다. 구습과 권위에 대항했던 당대의 대표적 독설가이며 사회비평가였던 멘켄은 브라이언을 지독히 미워했으며 그가 데이튼에 온 목적은 가능한 한 그를 조롱하는 기

사를 많이 개제하는 것이었다. 멘켄은 브라이언이 세 번이나 대통령선거에 실패하고 이제는 시골에 와 "깡통 교황" 노릇하기를 원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멘켄과 몇몇 비판가들은 브라이언이 위선적이고 부정직하다고 공격했다. 멘켄은 브라이언이 이번 재판에 가담한 근본 동기는 "복수심"이라고 일갈했다. "도 시민들의 표로 그는 무너졌고 그는 조롱당했다. 이제 그는 시골 촌뜨기들을 부추겨 이들에게 대항하려 한다"고 썼다(Mencken, 1991: 605). 재판의 하이라이트를 참관하고 나온 직후 멘켄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상을 읊었다.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련한 명청이가 되어 사라져간다."(Mencken, 1991: 606) 재판이 끝난 며칠 후 브라이언이 갑자기 숨을 거두자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제로 추정) 멘켄이 밝은 한마디는 "그래, 우리가 그 개자식을 죽였어" 였다 (Szasz, 1982: 119).

스코프스 재판의 첫 번째 긴장된 순간은 화요일에 다가왔다. 스코프스 측이 성경의 창조기사와 진화론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과학자와 목사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증인단을 투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전문가 증언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피고인 측의 전문가 증인단에 버금가는 과학적 위상을 가진 반진화론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유일하게 확보한 근본주의 과학자는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였다. 프라이스는 안식교인으로서 독학으로 지질학을 공부했으며 근본주의자들 간에 진화문제에 관련한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주류 지질학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그마저도 영국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할 수 없던 형편이었다. 전문가 증언의 도입여부를 두고 논쟁은 지루하게 계속되었고 화요일 전체를 소진하였다. 브라이언은 전문가 증언의 도입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이 재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연설을 했다.

우리는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다. 또한 전문가는 이 법을 반대하도록 법정에 허용될 수 없다. ... 통과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이들이 강변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Levine, 1965: 342).

당시 법정은 증언을 증인 자신의 의견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전문가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가증언을 위해 나온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Larson, 1989: 68). 스코프스 재판의 경우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증언은 필연적으로 다른 과학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 증언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브라이언에 대한 유명한 심문으로 인해 다로우는 스코프스 재판의 영웅으로 그려지곤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재판에서 가장 힘 있고 감동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 측 변호사로서 뉴욕의 저명한 이혼상담전문법률가였던 터들리 말로네였다. 브라이언, 다로우, 말로네(Malone) 등 당대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의 설전으로 정작 재판 당사자인 스코프스는 뒷전이었다. 스코프스의 회상에 의하면 재판의 전환점은 브라이언의 발언에 이어진 말로네의 연설이었다. 먼저 브라이언은 전문가 증언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반진화론 연설을 한 시간에 걸쳐 걱정적으로 쏟아내었다. 그러나 이어 등장한 말로네는 불과 25분 동안에 걸쳐 브라이언의 주장을 몽케버렸다.

브라이언 씨만이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에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브라이언 씨는 ...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정치에 바쳤습니다. ... 진리를 둘러싼 대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진리는 정부의 힘에 의해 수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씨의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 우리는 진보의 편에 서 있습니다. ...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근본적인 자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 물리칠 것입니다(Levine, 1965: 345-46).

말로네의 우레 같은 연설에 청중은 열광했으며 근본주의자와 모더니스트 할 것 없이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가슴에서 우러난 박수를 끝없이 보내었다. 한 신문기자는 "말로네의 연설로 데이튼의 판결은 내려졌다. 청중들은 이 뉴욕사람에게 환호하기 위해 난간으로 올라서기도 하고 복도로 쏟아져 나갔다. 30분이나 지나서야 방청석은 가까스로 진정되었다."(Levine, 1965: 346)

말로네의 감동적인 연설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아침 판사 롤스톤(Rolston)은 전문가증언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어이없게도 이 결정으로 재판은 거의 끝난 듯 보였다. 왜냐하면 다로우와 그의 동료들은 15인의 전문가증언에 기초해 자신들의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피고측의 패색이 짙어졌을 때 스코프스 재판에서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월요일 아침 재판이 속개되었을 때 다로우는 브라이언을 성경에 대한 전문가 증인으로 불렀다. 왜 브라이언이 이 제의를 수락했는지는 불분명했다. 왜냐하면 다로우는 반대쪽 변호사를 심문할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전문가 증인은 이미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로우는 아마도 자신이 겪게 될 지독한 심문보다 브라이언의 도전에 꼬리 내리는 것으로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을 더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판사의 거듭된 경고와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로우는 브라이언 역시 심문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법정논쟁사상 유례가 없는 이상한 요청을 받아들였다(de Camp, 1968: 381-82).

이어진 1시간 반 동안 다로우는 브라이언의 문자적 성경관에 대해 잔혹하게 심문했다.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는지, 태양을 멈춤으로 날의 길이를 연장했던 여호수아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방주 외의 모든 생명을 파괴했다고 하던 노아의 홍수가 물속의 물고기도 모두 죽게 했는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이브를 유혹한 죄로 인해 배로 땅을 기는 벌을 받은 뱀이 이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등 곤혹스러운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다로우는 지구의 연령문제도 질문했는데 브라이언이 이 문제에 대해 창세기를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지 따 보기 위함이었다.

다로우: 당신은 지구가 6일 동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이언: 24시간으로 이루어진 6일은 아닙니다.

다로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그렇지 않습니다.(de Camp, 1968: 403)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심문이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히고 있는지 차츰 깨닫기 시작한 브라이언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저항했다. 다로우가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을 조롱하려는 목적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 심문을 진행한다고 그는 소리쳤다. 이에 맞받아 다로우는 "우리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손에 쥐려는 고집불통 바보들을 몰아내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당신도 아는 바이다"고 쏘아붙였다(de Camp, 1968: 403-4).

다로우의 질문공세는 계속되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무지개에 관한 질문에서 심문은 정점에 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브라이언은 마침내 폭발했다. "재판장님, 이 심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자는 테네시 법정을 이용해 성경을 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 다로우도 소리쳤다. "당신의 발언에 반대하오. 나는 단지 이 지구상의 지성적 기독교인이 라면 어떤 사람도 갖지 않을 당신의 바보 같은 생각을 심문하고 있는 것이오!" 한 때 동지이기도 했던 이 두 거인은 두 사상을 대변하며 서로 맞서 주먹을 들이대고 있었고 청중들의 마음에는 놀라움, 슬픔, 승리감, 실망이 교차하며 탄성이 흘러나왔다. 미국지성사에 기록될 놀라운 한 장면이었다.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수백만을 감동시켰던 그 찌릿찌릿한 목소리, 당당한 풍채의 이 위대한 인물이 자신을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비극이었다(de Camp, 1968: 413).

심문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로우에게 달려가 축하를 전했지만 브라이언은 참담하게 무시당했다. 몇몇 근본주의자들은 그에게 눈을 흘기며 등을 돌리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땅에 떨어진 권위를 되찾기 위해 다음날 다로우를 심문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이를 말렸다. 동료들은 브라이언-다로우의 대결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감지했고 브라이언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결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브라이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못 다한 장문의 연설을 신문에 실어 불경한 반대를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루지 못했는데 재판이 끝난 일주일 후 갑자기 서거했기 때문이었다.

판결은 화요일에 확정되었다. 바틀러법을 어긴 죄로 스코프스에게 최소 벌금인 \$100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8일간의 역사적인 재판은 이렇게 조용히 끝을 맺었다.

V. 결론: 스코프스 재판에 따른 반진화론운동의 쇠퇴와 진화론의 실종

법적으로 볼 때 스코프스 측은 패소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스코프스 측은 패하지 않았다. 반진화론법을 만들었던 무지와 불관용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근본주의 역사의 권위자인 조지 마스덴(Marsden, 1980: 186)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스코프스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여론과 언론의 재판에서는 20세기, 도시, 대학이 시골, 남부, 근본주의자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8일간의 재판에서 브라이언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퍼부어진 언론의 비난은 반진화론운동을 위축시켰다. 이에 더해 근본주의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브라이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은 심각한 충격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언론의 조롱과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반진화론운동은 즉각 사그라지지는 않았다. 반진화론운동은 스코프스 재판 후 최소 2년은 더 유지되었다.

스코프스 재판을 근본주의 논쟁의 정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역사학자 페랭크 자쑤(Szasz, 1982: 123)는 오히려 "조직적 반진화론운동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주의자 자신들은 스코프스 재판을 반 진화론운동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운동을 지탱하는 자극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반진화론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지켜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예로 스코프스 재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심지어 브라이언의 죽음도 반 진화론운동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브라이언의 죽음은 오히려 순교로 받아들여져 운동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반진화론운동은 스코프스 재판 이후 더욱 활발해졌으며 각 주에서 반진화론법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했다. 반진화론운동은 스코프스 재판이 끝난 2년 후인 1927년 13개 주에서 반진화론법이 상정되며 최고점에 달했다.

반진화론 운동의 열기만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 스코프스 재판을 통해 일었던 반진화론법에 대한 언론과 도시민들의 반감도 반진화론 운동의 열기와 상응해 높아지며 양자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에는 아칸소와 미시시피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반진화론법의 통과가 실패로 돌아갔다. 스코프스 재판 이후 가열되었던 반진화론운동은 이렇게 반 진화론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930년에 이르면 진화론논쟁은 신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⁴⁾

4) 한 예로 색인을 사용해 20세기 초 『뉴욕 타임스』에 등장한 반진화론논쟁 기사의 편수를 조사해 보았다. 첫 번째 기사는 1922년 1월 27일 실렸는데 켄터키 주의 반 진화론법 관련 보도였다. 이후 이 해에만 70여 편의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1923년과 1924년에 걸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1925년 스코프스 재판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수백 편으로 꺾충 뛰게 된다. 이후 70, 60, 23, 9편으로 점차 감소하다 1930년이 되면 반진화론 논쟁에 대한 기사를 단 한편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스코프스 재판이 반진화론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진화론 측의 승리로 보기도 힘들었다. 스코프스 재판 8년이 지난 후인 1933년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사들 중 약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래비너와 밀러의 1974년 연구는 진화론자들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20년대 진화론자들이 여론재판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착각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대결장인 고등학교 생물학 교육에서는 패했다"는 것이다(Grabiner, 1974: 832). 당시 널리 사용되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이들의 연구는 스코프스 재판 이후 진화론 교육이 "쇠퇴"했으며 1960년대 새로운 BSCS (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ies) 교과서가 나오면서야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⁵⁾ "진화"라는 용어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으며 대신 "생물형태의 변화"나 "발달 이론" 같은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사실상 "예외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짧고 피상적인" 언급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주의자들의 압력 특히 스코프스 재판이 교과서업계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Grabiner, 1974: 834-45). 제랄드 스쿠그(Gerald Skoog, 1983)의 계량적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쿠그는 1900년에서 1977년 사이에 출판된 93종의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를 분석해 진화에 관해 설명한 단어수를 헤아려 보았다. 분석결과 그는 "1960년 BSCS 교과서가 도입되기 이전의 생물학교과에서 진화론은 피상적이며 도외시된 주제였다"고 명확히 결론지었다. 이는 "진화론 교육을 억압하고 쇠퇴시키려는 반 진화론자, 창조론자들의 끈질긴 시도에 대한 출판업자, 저자, 교사, 정치인들의 반응

5) 1959년 구소련은 세계최초로 스푸트닉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다. 과학 중 주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이에 충격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전체 과학 교과과정의 전면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이의 일환으로 BSCS로 알려진 새로운 생물학 교과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교과서는 30년 넘게 제외되었던 진화론을 복귀시켜 폭넓게 다루었다.

"이었다고 지적했다(Skoog, 1983: 83).

스코프스 재판과 연이은 투쟁은 양 측 모두에 두려움 즉 반진화론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출판업자와 교사들에게는 원치 않는 논쟁에 휘말린다는 두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양측 모두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 중등학교에서의 진화론논쟁은 점차 잦아들었고 1960년대 논쟁이 재개되기 까지 약 30년의 소강상태가 이어진다. 불안한 평화의 시대를 열며 20세기 미국 진화론 논쟁사의 한 막이 내리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박희주 (1999), "과학사의 쟁점: 창조-진화 논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국과학사 학회지』 21권 1호 112-120
- Bryan, W. J. (1922), "God and evolution," *The New York Times*, section 7, 1
- Conklin, E. G. (1922), "Bryan and evolution," *The New York Times*, section 7, 14
- de Camp, L. Sprague (1968), *The Great Monkey Trial*, New York: Doubleday & Company
- Ellis, W. E. (1981), "Evolution, fundamentalism, and the historians: an historiographical review," *The Historian*, 44, 16
- Fosdick, H. E. (1922), "Attacks W. J. B.," *The New York Times*, section 7, 2
- Ginger, R. (1958), *Six Days or Forev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 Grabiner, J. V. and Peter D. M. (1974), "Effects of the Scopes Trial: Was it a victory for evolutionists?" *Science*, 185, 832
- Kellogg, V. L. (1917), *Headquarters Nights*, Boston: Atlantic Monthly Press
- Larson, J. E. (1987), "Before the crusade: evolution i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before 1920,"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20(1) 89-114
- Larson, E. J. (1989), *Trial and Error: The American Controversy Over Creation and 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e, L. W. (1965), *Defender of the Faith: William Jennings Bryan: The Last*

- Decade*, 1915–192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sden, George M. (1980),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ncken, H. L. (1991), *The Impossible H. L. Mencken: A Selection of His Best News paper Stories*, ed. by Marion Elizabeth Rodgers, New York: Double day.
- Numbers, R. L. (1982), "Creationism in 20th-Century America," *Science*, 218, 541.
- Numbers, R. L. (1992), *The Creationists: The Evolution of Scientific Creationism*, New York: Alfred A. Knopf, 41.
- Osborn, H. F. (1922), "Evolution and religion," *The New York Times*, section 7, 8
- Pfeifer, E. J. (1972), "United States," in Thomas F. G. (ed.), *The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koog, Gerald (1983), "The topic of evolution in secondary school biology textbooks: 1900–1977," reprinted in Peter Zetterberg (ed.), *Evolution versus Creationism*, Phoenix: The Oryx.
- Szasz, F. M. (1982), *The Divided Mind of Protestant America, 1880–1930*,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Webb, George E. (1994), *The Evolution Controversy in America*,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Abstract

The Anti-Evolution Movement in the 1920s and the Scopes Trial

Hee Joo Park(Myongji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he Scopes Trial that was the most prominent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in the twentieth century. Firstly, I will describe how Darwin's theory of evolution was introduced to the U.S. and how anti-evolution movement was mobilized. In particular, I will explain how the anti-evolution sentiment abruptly surged within the conservative Christian circle in the early 1920s and how evolution became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Then I will describe the sweeping anti-evolution movement and, in particular, the passage of the anti-evolution law in Tennessee which resulted the Scopes Trial. During the Trial, the focal point was the confrontation between Bryan who led the anti-evolution crusade and Darrow who represented the evolution side. Lastly, I will examine the impact of the Scopes Trial on the anti-evolution movement and evolution education.

Key Words: Scopes Trial, evolution, creationism, anti-evolution crusade, Willaim Jennings Bryan